

# Lenzing, 특수섬유 4만톤 프로젝트

## 중국에 Viscose Fiber 투자 유력 ... Zimmer 상대 계약위반소송 준비

Lenzing Group은 세계적으로 Viscose 수요회복의 기미가 보임이기 시작함에 따라 2004년 중반까지 중국 특수섬유 4만톤 프로젝트의 건설부지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국 특수섬유 프로젝트는 Lenzing의 Viscose 생산능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Lenzing은 새로운 특수섬유 분야, 특히 부직포(Nonwoven)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Lenzing은 최고급 직물시장을 겨냥해 오스트리아 Lenzing 소재 Modal Viscose Fiber 생산능력을 20만톤으로 2만톤 확대하고 있으며 200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04년 초까지 오스트리아 Heiligenkreuz 소재 Lyocell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2만톤 증설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Cellulosic Fiber 생산능력이 총 4만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Heiligenkreuz 소재 Lyocell 2만톤 플랜트는 2003년 9월 화재사건으로 가동이 중단됐으나 최근 들어 다시 재가동에 들어갔다.

Lenzing은 중국의 섬유수요가 급증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에 건설하고 있는 특수섬유 플랜트는 Modal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Lenzing의 2003년 1-9월 매출은 4억5000만유로(5억4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하고 EBITDA (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 Amortization)는 8400만유로로 8%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nzing은 섬유 플랜트를 거의 풀가동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판매량을 유지했다. 부직포 분야에서는 Viscostar라는 새로운 섬유를 출시했는데, Viscostar는 면섬유만큼 흡수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Lenzing은 특수섬유 분야에서는 최근 섬유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또 유럽에서는 유로화 강세로 아시아 섬유 및 Yarn 수출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2003년 말 전까지 매출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enzing은 독일 Zimmer AG를 상대로 Lyocell 생산 프로세스 특허계약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Zimmer는 독일 Rudolstadt에 Lyocell Pilot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Lyocell 플랜트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enzing 및 Accordis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Lyocell 상업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계약을 통해 Lyocell 생산기술을 관리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1/30>